

# 부작용 우려되는 알코올 함유 음료 편리하지만 다칠 위험 있는 푸드 믹서

유아·임산부가 다량 섭취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알코올이 함유된 탄산 음료, 편리하기는 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푸드 믹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시내버스 뒷좌석 등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위험 요소가 널려 있다.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법을 소개한다.

-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
- 글/오승건(소비자정보국)

## 알코올 함유 음료



시중에는 탄산 음료에 과즙과 더불어 알코올 농도 40%인 데킬라가 0.1% 들어 있는 제품도 판매된다. 이를 순수한 알코올로 환산해 계산하면 제품 용량 180mL에 0.004%를 차지한다.

알코올 함량이 표시돼 있고 미량인긴 하지만 어린이나 유아가 많이 마실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주의 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의하면 캔디류처럼 당알코올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은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과량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미량의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주의 사항 표시 기준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청량 음료 내의 미량의 알코올은 원재료에 표기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험성이 낮은 만큼 '어린이·유아·임산부는 음용하지 말라'는 주의 사항의 표기는 불필요하

다는 견해다.

일부 초콜릿의 경우에도 미량의 알코올은 향과 풍미의 향상을 위해 첨가되고 있으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외국의 관련 규정에도 미량 알코올 함유 시에는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탄산 음료에 첨가되는 알코올 양은 0.004%로 매우 적은 편이지만 유아나 어린이, 임산부가 다량 섭취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비자 스스로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유아·어린이·임산부는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푸드 믹서

요즘 홈쇼핑 최고의 인기 품목은 단연 '도깨비방망이'라 불리는 푸드 믹서다. 어떤 용기에서든 스위치만 누르면 회전 칼날을 이용해 주스를 손쉽게 만드

는 기계다.

이렇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주방기기인 푸드 믹서는 쉽게 작동하는 편리함만큼이나 쉽게 다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일정한 용기에 고정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용기에나 그리고 빈 공간에서도 스위치만 누르면 작동돼 칼날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본체만을 작동할 경우 칼날이 외부에 노출되어 전원이 켜져 있을 때 실수로 스위치를 누르거나 아이들이 스위치를 잘못 누르기라도 하면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 문구도 미비해 세워두는 본체에만 까만 글씨로 '전원 플러그를 꽂을 때에는 스위치가 반드시 꺼짐에 있는지 확인한다. 작동중에는 칼날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라고만 되어 있고 사용하는 손잡이 부분에는 주의 표시나 어린이가 만지지 못하게 하라는 등의 주의 문구가 전혀 없다.

외국산 일부 제품은 외부 지지대의 칼날 부위를 덮개로 감싸고, 작동 방식도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했다.

### 안전한 제품 구입법

**위험한 제품** - 용기를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칼날부만 올려놓고 누르면 칼날이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제품이다. 본체 상단에 돌출 스위치가 있어 이를 용기로 누르면 칼날이 돌아가거나, 별도 스위치가 있어 칼날부만 맞추어 끼우고 손으로 누르면 칼날이 돌아가는 것은 위험한 제품이다.

**안전한 제품** - 용기에 돌출 부분이 있고



본체의 상단 가장자리에 스위치가 있어 용기의 돌출 부분에 이것을 맞추어 누르면 칼날이 돌아가는 것은 비교적 안전한 제품이다. 본체에 칼날부와 용기를 맞추어 끼우고 별도의 용기를 덮는 케이스가 있어 이것의 돌출 부분이 본체의 상단 가장자리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칼날이 돌아가는 것은 안전한 제품이다.

☞ 소형 믹서 안전 실태(소비자시대 99년 1월호)

## 베이비파우더

아기 기저귀를 갈아줄 때 쓰는 베이비파우더는 소량인 경우 가벼운 기침을 유발하지만 아기가 제품 용기를 가지고 놀다가 많은 양을 흡입하면 심각한 폐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미국 롱아일랜드 의사들은 옥수수 전분 파우더를 흡입 후 호흡기 장애와 심각한 폐질환을 일으킨 1개월 된 아기에게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보통 파우더만큼 전분 파우더도 사용할 때 다량 흡입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판매되는 베이비파우더에는 파우더 분말의 흡입에 대한 주의 사항 표기가 없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용중에 흡입되는 양으로는 이러한 위험이 없으며 아기가 파우더를 가지고 놀다가 많은 양을 흡입할 경우에

는 위험하다고 한다.

따라서 '유·소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이라고 주의 사항을 표기하고 있다고 한다.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후 보호자는 베이비파우더를 만지지 못하도록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 시내버스 뒷좌석

시내버스 뒷좌석은 다른 좌석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창문보다도 높다. 거기다가 창문이 커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창문 쪽으로 조금만 숙이면 버스 밖으로 떨어질 위험이 많다. 아이들끼리 앉아 밀고당기며 장난 칠 경우에는 더욱 위험하다.

시내버스가 급제동이나 급회전하게 될 경우에도 위험하다. 특히 다리 위를 지날 때 급가속하여 달려가다 다리 끝부분에서 좌·우로 급회전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맨 뒷좌석 옆 창문을 위 아래로 나눠 위쪽만 열게 하거나 쇠창살을 대는 식으로 개선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91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시내 버스 안전 실태를 조사해 관계 기관과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일부 버스는 맨 뒷좌석 옆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고 반만 열리도록 개선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버스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들끼리는 버스 맨 뒷좌석에 앉지 못하도록 한다.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탈 때에는 창문 옆에 앉히지 않도록 한다.

### 데워먹는 떡갈비햄

한경선 씨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떡갈비햄을 구입해 전자 레인지에 2분 10초간 가열한 후 세 살 된 아기와 함께 먹었다. 먹는 순간 혀가 타 들어가는 듯이 고통스러웠고 혀 점막이 벗겨져 병원을 찾았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한씨는 방부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지나친 과열로 인한 화상 때문이라는 의

사의 답변을 들었다.

외국에서는 전자 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 일부분만 과도하게 가열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식품은 전자 레인지로 데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업체에서는 음식 내부 온도에 대한 엄밀한 측정 없이 외관상으로 보아 데워진 정도로 가열 시간을 설정하고 있다. 업체의 과학적인 조리 시간 설정에 대한 체계 설정이 필요하다.

제품을 구입한 뒤 화상을 입을 정도인지 표시 방법대로 시험한 결과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으나 온도 편차가 매우 컸다.

시험 결과로 미루어 보면 표시보다 지나치게 가열하면 어떤 쪽은 온도가 낮

고 어떤 쪽은 온도가 높아 화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이름의 떡갈비햄 중에서 냉동전 비가열 제품은 완전하게 익혀 먹어야 한다. 하지만 완전하게 익혀지는 온도에 도달할 수 없어 식중독균에 의한 질병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 날카로운 머리띠

이장주 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최근 머리띠를 바꾸고부터 가렵고 아프다고 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머리띠 밑부분에 머리카락을 고정시키기 위해 부착된 울룩볼룩한 부분의 플라스틱이 날카로웠다.

플라스틱 머리띠는 더욱 날카로워 머리 피부가 긁히는 경우도 있고 피부가 발갱게 부어 오를 때도 있다.

한 살배기 박도훈 어린이는 플라스틱 머리띠를 입에 넣는 등 갖고 놀다가 잇몸이 찢려 1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부분의 머리띠는 제조 회사 표시가 돼 있지 않은데다 노상에서 많이 판매된다. 머리띠를 구입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다칠 위험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머리띠는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한다.●

## 위해 정보 신고 전화 '핫 라인'

- 080-900-3500,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 이용 -

일상 생활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소비자는 위해 정보 신고 전화 '핫 라인'으로 신고하십시오. 소비자의 소중한 정보는 다른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핫 라인'으로 수집하는 소비자 위해 정보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한 사망 사고나 인체에 위해를 입은 사고 및 이러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각종 정보이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생선재로 인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위해 정보를 제공하려는 소비자는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위해의 경위, 위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위해 발생 장소, 치료 기간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핫 라인'은 080-900-3500번이며 전화 요금은 본원에서 부담합니다. '핫 라인' 문의는 소비자안전국[(02)3460-3154~55]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해 정보 신고는 PC 통신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하이텔·천리안 접속→go sobi→ID등록→Top 메뉴에서 5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